

나도 당신처럼 골프나 치고 싶다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정보요원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 숲속으로 도망치는데 희끄무레한 건물이 보인다. 아마도 화장동 안기부 청사인 듯하다. 건물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린다. 틀림없이 반체제 인사나 운동권 학생이 붙잡혀 고문을 받고 있을 것이었다.

한참 쫓기다 가까스로 잡아서 됐다. 전두환 시절 그곳에 연행돼 작은 고초를 겪은 지 벌써 40년이 되어 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 극심한 '독재의 트라우마'가 사라지려나.

전두환이 골프 치는 영상이 지난주 공개됐다. "드라이버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다." 10개월 추적 끝에 영상 촬영에 성공했다는 임한술 정의당 부대표의 관전평(?)이다. 영상을 직접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아마추어치고는 '어프로치 샷'이 일품이다. 88세라는 나이가 전

혀 느껴지지 않는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정하기만 했으니 말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임 부대표가 1000억 원대 추정금 납부 여부를 묻자 전두환은 "내가 좀 내 주리"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군대는 갔다 왔나?"며 조롱하듯 되묻기도 했다. 다음은 아직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추린 대화 녹취록이다.

전두환, '후안무치의 지존'

임(한술):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전(두환):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임: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전: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임: 발표 명령 내리셨잖아요.

전: 내가 왜 발표 명령을 내리?

임: 발표 명령 안 내리셨어요?

전: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

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임: 당시에 실권자였잖아요.

전: (너) 군대 갔다 왔나?

임: 예. 그리고 천억 원이 넘는 추정금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추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전: 내가 좀 내 주라.

참으로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한데 영상이 공개된 그날 오후, 갑자기 '전두환 자살'이 인터넷 '실경' (실시간 검색어)에 났다. 깜짝 놀랐다. 그리 정정하던 사람이 자살이라니. "전두환 자살 뜬 이유가 뭐예요? 아직 정정하시던데 왜 이런 게 연관 검색어에 뜨죠?"

누리꾼들은 언제나 친절하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이 바로 뜬다. "(전두환이)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는 민심의 반영입니다." "알츠하이머라며 범원 출두도 안 하고 있는데 말짱하게 골프 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난 듯합니다."

한데 꽤 긴 장문으로 진지하게 논리를 펴는 이도 있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5·18 내란 살인죄 등으로 1심 사형선고를 받았던 역사적 죄인입니다. 이제라도 죽음으로 회개하려는 네티즌의 바람이 모여져 '전두환 자살 실경'으로 뜬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전두환뿐만이 아닙니다. 독재에 충성하는

추종자들과 한국당 보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독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하고 반면에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글이 넘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렇다. 둘러보면 '방구 권 놀이 성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기막힌 현실'이 얼마나 많은가. 적반하장은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생각해 보라. 집안에 든 도둑이 주인을 존엄하게 꾸짖는 상황. 재물을 뺏긴 것도 서러운데 도둑으로부터 "앞으로 집안 단속 잘하리"는 훈계까지 들어야 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닌가.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 1호가 될 뻔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도 그렇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를 오히려 삼청교육대에 보내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뜻이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그런 말을 듣고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인 오승로대학교 한국학과 박사자 교수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그는 "만약 독일의 정치인이 본인이 싫어하는 좌파에게 '부헨발트 수용소'(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싶다, 히틀러 수용소에 갔다 왔으면 한다'고 말을 했

다면 정치 그만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두환이 만든 한국의 삼청교육대 역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지옥 같은 강제수용소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누군가를 삼청교육대에 보내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의 인재로 있는 상황이 아마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며 무사하게 지내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96세, 97세가 돼도 아우슈비츠에서 보초만 섰더라도 그 사람은 재판을 받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전두환 골프 라운딩 영상과 관련해 "학살을 해 놓고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라며 "그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골프나 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를 비호해 주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도 한국당은 말이 없고

'대차나'(과연) 맞는 말이다! 한데 그를 비호해 주는 계층은 누구일까? 꼭 짚어 말할 순 없겠지만 아마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두환이 말짱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고도 자유한국당만은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 평화당 및 대안당까

지 일제히 나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이제라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른미래당도 "인면수심의 극치인 전두환입니다"며 "광주시민의 고귀한 도덕심과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 그에게 '인간적 삶'을 허락했지만 더 이상의 인내를 없다. 그가 발 들일 곳은 골프장이 아닌 재판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당은 말이 없다. 이러니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선거 때마다 호남 사람들이 한국당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인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석방해야 한다"고 당당히 외치는 의원(정중섭, 대구 동구갑)을 품고 있는 정당도 한국당이다. 이런 한심한 '교락서니'(꼴)를 보고 있는노라면 정말 어디 맘 둘 곳 없어 심란해지며 한숨만 절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깊어가는 가을이며 떨어지는 낙엽 탓뿐 일 것인가.

아, 나도 이제 40년 '글 감옥'에서 벗어나 전두환처럼 한가롭게 골프나 치고 싶다. 하릴없이 시조 한 수 읊으며 글을 맺는다. "백색이 자자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색, 李穡, 1328~1396)

전남도, 전국 최초 음성으로 재난 알림서비스 시작

2020년부터 정식 앱 보급

전남도민들은 앞으로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긴급재난재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문자 읽기에 취약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1일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재해, 주민생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리는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어플리케이션(App)을 전국 최초로 개발,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정식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흥인의 한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영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남지부장, 배기술 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모바일 앱 개발·보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는 도민에게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이다.

그동안 지진, 해일,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문자전송시스템(CBS)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

김 지사는 "정보 시각장애 해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온 한전산업개발에 감사하다"며 "앱이 보급되면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도청 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한전산업개발 측에 스마트 폰을 통해 마을방송처럼 정보를 전달할 앱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전산업개발은 사회공헌차원에서 앱을 개발해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앱 개발을 완료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전남도는 11일 말부터 이·통장,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내년 상반기 착공 2023년 개통...진월·봉선동 교통 체증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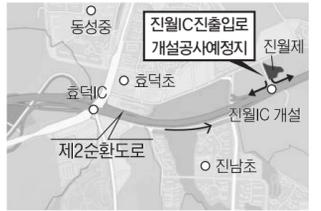
교통 체증이 잦았던 광주 남구 진월 IC 진출입로가 개설된다. 광주시는 11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 행정절차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덕 교차로 인근에 진월지구 진출로, 진월제 부근에서 상무지구 방면을 오가는 진출입로가 개설된다.

이 사업은 진월동, 노대동, 봉선동, 효천지구, 용산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당 구간은 평소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IC, 효덕IC 일대 교통 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지원돼 실시계획 인가 이후 진행되는 토지매입 등 손실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연차적으로 모두 110억원을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투입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무료로도 구간이어서 광주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방통위 상임위원 김창룡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 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아울러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냈다. 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 자리를 메우게 된다.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재개하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강일 고성군수,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금강산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월산동 무진중 건너편 내대지 234㎡ 원룸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북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 137㎡ 전방 좋은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금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할 3300만원
- 충남 대안군 안면읍 정동리 땅 1749㎡ 교황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신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몽탄면 연산리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터)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할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완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육 적합 15억천
- 완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2천 교차로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입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73㎡ 2층 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5억2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는 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진환경생물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